"불교방송 기구 대폭 축소"

6국14부서 2국7팀으로…불교TV와 통합도 시사

성낙승사장 조계종 종회서 구조조정 밝혀

불교방송 성낙승사장은 불교방송의 6국 14부를 2국 7팀으로 축소하고 상무직제 폐지 및 부장급이상 선별 해고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7일 열린 '조계종 130회 임시 중앙종회'에 사장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성낙승사장은 불교방송의 구조조정 윤곽을 이같이 제시했다. 또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돼 왔던 불교TV와의 통합문제에 대해 가까운 시일은 아니더라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양 방송사의 통합설이 분분했던 가운데 불교방송 사장이 공식적으로 통합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불교방송은 12일 부장급 이상 간부직 사원 15명에 대한 일괄 사표를 받는 등 사실상의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 따라서 이번 구조조정 언급에 대해 일부에서는 성사장이 중앙종회를 겨냥해 미리 구조조정안을 만드는 등 자구책 마련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고 이에따른 종단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교방송은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돼 긴축재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렇게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될 경우 기구축소 등으로 방송제작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교방송은 17일 '제7차 노사협상'과 18일 노조총회에서 △정규직 사원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 △상반기 상여금 300% 반납, 하반기 상여금 추후 협상 △본사 계약직 사원 17명 정리해고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기구축소가 이루어질 경우 부장급 이하 간부 및 사원들의 정리해고도 피할 수 없어 노조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불교방송 불교TV 통합' 문제는 현재 불교방송이 재단법인으로, 불교TV는 주식회사로 등록돼 있고 종단과의 관계 등 이해가 얽혀 있어 법적, 인적 통합이 쉽사리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그러나 불교TV 사장인 정우스님이 불교방송 이사로 영입될 것이 거의 확실시돼 이사영입이 양 방송사의 통합을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양 방송사의 통합여부에 대해 불교TV 기획조정실장 남현스님은 "범 종단 차원에서 지원하는 종합미디어센터 등과 같은 복합방송 기구가 신설될 때만이 가능하다"며 "양 방송사의 통합은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이나 재정 확충상 효율적이다"고 찬성의 뜻을 표했다.

김주일 기자

방송단신

월운스님 btn '교리강좌'

불교TV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11시~11:50분에 방송되는 기초교리 강좌의 진행자가 23일부터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으로 교체됐다.

월운스님은 해박한 불교지식과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초발심자들이 알아야할 기초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BBS 고승열전 '원효대사'

BBS는 26일부터 오전6시25분~6시35분까지 고승열전 '원효대사'편을 방송한다.

불교 고승대덕의 일대기를 다양한 음향효과를 사용해 전달해 주는 인기프로 고승열전 '원효대사'편에서는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 등의 수많은 저서와 불교의 대중화에 이바지한 스님의 일대기를 흥미 있게 소개한다.

EBS '부탄 종교생활' 방영

EBS는 27일 저녁 7시10분~7시35분까지 용의 함성이 들리는 나라 '부탄사람들의 독특한 종교생활'을 방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히말라야 동쪽 기슭에 위치한 부탄의 자연환경과 종교생활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7세기경 티벳의 한 왕으로부터 불교를 전파받은 부탄은 부처의 화신인 '구루 린포체'의 업적을 기리는 '체추' 의식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하나로 통합된다.

화려한 가면극 등 밀교 의식이 영상으로 꾸며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탄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신행수기 당선작

특별상(종단협회장상)

아니, 미국까지 와서④

인과응보의 법칙 알게돼
8정도 수행덕목 삼아
뉴욕의 이웃에 전법 발원

그림 · 이준석

나는 언니의 권고에 따라 가끔 교회도 가보고 부흥회도 가 봤다. 아멘을 외치고 통성기도를 하는 이들을 보면서 나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세계임을 절감했다. 그렇지만 난 그들을 이해했다. 그럴 수도 있으려니. 그것에 마음을 걸고 살아가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일체가 유심조 아닌가!

나는 천상 부처님 제자이다. 부처님 법 속에 내 마음이 열려지고 있으니까. 괴로움도 슬픈 일도, 즐겁고 환희에 찬 느낌도 변화하는 과정임을 알았다. 그러한 진리를 부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셨다. 그러니 어디에 매달리거나 끄달릴 필요가 없다.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움을 만끽할 수 있는 생활. 마음의 자유로움은 자신감에서 비롯되고, 자신감은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체험했다. 적극적인 생활은 그 생활의 순간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삼매력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발생케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 위로받고 즐거움과 평안을 얻게 된 것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다. 이곳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몰라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리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매주 부처님 법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계기로 이곳 뉴욕의 많은 불자님들과 소중하고 고마운 인연을 맺고 있다.

나의 서원을 이루는 길목, 미국에 유하오신 H스님과 인연이 닿아 97년 10월 경전학습, 수행정진, 사회봉사의 3대강령을 교육목적으로 법사양성교육원을 뉴욕 최초로 설립하여 경전공부를 하게 되었다. 20여명의 동참 도반들께서 한결같이 경전공부가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수료식에서 소감을 들려줬다.

수법사 수료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오계를 받았다. 정식 불자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불자로서의 의무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을 마음으로 했다. 불자가 지켜야 할 기본덕목인 팔정도를 행함으로써 수행의 본을 삼으리라.

"이 세상에 기독교교리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교경전 하나만 가지고도 극락정토와 인류사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없어서 이 현실 세계가 갈등과 전쟁 반목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실행이 없기 때문입니다"는 스님의 법문이 마음에 절실하게 와 닿았다.

행여 불자간의 불협화음이 있다면 보살행에 대한 불자로서의 실행을 올곧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경우엔 상대를 탓하기 전에 늘 자아성찰의 계기를 삼아야겠다는 생각이다. 불교인구가 적은 이곳에서 불자의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는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스스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면모를 세계의 중심도시 뉴욕에 알려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이들에게 정신적 위안처를 마련했으면 한다.

부처님 법 만난 즐거움과 그로 인해 자신감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의 불자이고 싶다. 부처님 법은 정법이기에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았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닫고 자업자득의 진리를 안다면 억지로 선한 일을 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런 흐름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어떠한 회유로써 개종권고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흔들릴 수 없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금방 도움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마음이 가지 않는다. 제행무상의 길을 알고 나의 주인공은 자신임을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셨기에, 곧 내가 나를 만들었음을 뚜렷하게 알았기에.

김연장 (미국 뉴욕시 거주)

자비와 축복의 상징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⑤

◇마르티니 作 '수태고지'(부분) 1333년 作. 우피치미술관 소장.

나뭇가지

불교에서의 버들가지는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을 상징한다. 중생의 고난을 살피는 관세음보살은 33종의 모습으로 현신하는데 33현신의 제1위가 양류관음(楊柳觀音)이다. 흔히 왼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오른 손에는 버들가지를 쥔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는 버들가지가 실바람에도 나부끼듯이 미천한 중생의 작은 소원도 귀기울여 듣는 보살도의 자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 그림은 버들가지를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을 표현한 대표적인 양류관음도인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후불벽화.

왼쪽 그림에서 성모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리는 천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 많이 나는데 귀한 이들에게 흔들어 축복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화림 (예천 법화암 주지)

◇전남 강진군 무위사 극락전의 양류관음도(1476년 作).

PCS 016을 쓰시면 1년에 20만원이상 절약됩니다.

(월400분 사용기준)

오래 쓰시면 추가로 최대 20%까지 할인됩니다

이용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할인율	5%	10%	15%	20%

번호를 지정하시면 20%가 더 할인됩니다

3개 번호까지 자주 쓰는 번호를 지정하시면 그 번호의 통화요금은 20%이상 할인됩니다 (월사용료 2,000원 별도)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기본료(월)	16,500원
통화료(10초당)	평상(19원) 할인(15원) 심야(10원)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 조성을 위해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특별할인 판매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란?

PCS 016 가입시,「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 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 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 나라

주관:현대불교신문사
후원: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갑로심장회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02)732-1522, 737-8881,
FAX:(02)737-0697 (02)737-0698, 0696

● 특가 판매 ●

- LG LGP 1300
- 현대 걸리버 1100
- 삼성 애니콜 1100, 2000

시중 최저 가격!

※ 98년 3월 가입자에 한하여 특가판매와 440분의 무료통화 시간을 드립니다.

소리가 보인다
PCS 016